

# 김산호 회화극본

## The story of Holy Buddha

# 부처님

### 제1화 사카족의 탄생 ⑤



**마**침내 네명의 젊은 왕자들은 성문을 열고 긴 여정에 올랐으며 태자에게 불안함을 느끼고 있던 백성들은 모두 집을 버리고 왕자들의 행렬에 참가하니 성안의 반이 씩씩하게 비어 남게 되었다.

불안한 마음으로 출발했던 많은 백성들은 산기슭을 타고 남쪽으로 향하면서 눈앞에 속속 나타나는 드넓은 대지와 풍요로운 산천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

네명의 왕자들이 이끄는 이 사카족 일행은 그들보다 먼저 와서 정착한 것 같은 사카족의 일족인 코리아(Koliyas)족의 영역을 지나게 되었다. 먼 타지에서 동족들을 만난 그들은 크게 기뻐으나 그렇다고 남이 애써 개간해 놓

은 땅에 끼어들 생각은 하지 않았다. 코리아의 땅을 벗어나자 이번에는 그들의 눈앞에 꽃으로 뒤덮인 아름다운 동산이 나타났었다. 먼 훗날 부처님이 태어나실 성지 '룸비니 동산'이 그곳이다.

꽃동산을 지나 얼마쯤 더 가자 마침내 새 나라를 일으키기에 적당한 땅을 발견하게 되었다. 맑고 깨끗한 물이 강을 이루어 흐르고, 대지는 기름져 있으며 고향을 회상케 하는 희마리의 설산이 그 웅장한 모습으로 손짓하고 있는 바로 그런 이상적인 땅이었다.

"자, 이곳에 우리들의 새 나라를 세우자." 왕자들의 결정에 그들을 따르던 백성들은 일제히 환호하였다.



**왕**자들은 소왕국 카필라바스투의 입국을 주위의 나라들에게 선포하고 네명의 왕자중 제일 큰 형이 제 1대 라자(王)에 올랐다.

카필라바스투는 즉시 현지에 살고 있던 검은 피부의 원주민들을 굴복시켜 노예로 삼고, 그 위에 군림하며 마하삼마대왕의 혈통을 받았음을 만방에 과시하였다.

**이**곳을 새나라 건립의 적지로 생각한 왕자들은 우선 그들의 안전을 지켜줄 성을 세워, 모든 백성들을 성안으로 옮겨 살게한 다음, 성주위의 가까운 땅부터 개간하여 나라의 집터를 잡아갔다. 드디어 역사적인 사카족(Sakyas)의 카필라워(Kapilavastce-카필라바스투)성이 탄생한 것이다.

성의 동쪽으로는 로히니(Rohini)강과 티나우(Tinau)강이 흐르고 서쪽으로는 반강가(Banganga)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다. 바로 이웃에 '코리아(Koliya)' 혹은 '데바다하

(Devadaha)'라 불리는 동족(사카족)의 나라가 있어 한결 마음이 든든했지만, 남쪽으로 쿠시나가라(Kushinagar), 바이살리(Vaishali), 파바(Pava), 코살라(Koshala) 등의 나라들에 둘러싸여 불안하였다.

당시의 여러 군소 제국들중 코살라국(Koshala)과 마가다(Magadha)국이 유난히 강력했는데 마가다국은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코살라국은 바로 턱밑에 버티고 있어서 카필라바스투의 번영은 코살라국의 승인을 얻어야만 비로소 가능해 보였다.



**제**1대 라자(王)가 죽자 제 2, 제 3왕자가 차례를 이었으나, 그들 역시 젊은 나이에 요절하여 결국 막내왕자에게도 라자의 자리에 오를 기회가 왔다.

이 마지막 왕자가 바로 사자협인데 그로부터 부처님의 아버지가 되는 숫도다나(Subhadana)라자가 태어나게 된다.

사자협(獅子)의 원 이름은 심하하누(Simhahanu)이다. 숫도다나 라자(王)는 한문으로 '정반왕(淨飯王)'이라 하는데 그 뜻은 '좋은 쌀을 가진 왕'이라는 뜻이다.

사자협(獅子) 라자에겐 네명의 아들과 한명의 딸이 있었는데 장남인 숫도다나(淨飯)가 다음 왕위를 계승했고, 둘째 왕자 슈크로다나(白飯), 셋째가 도토다나(解飯), 넷째가 아프리토다나(甘露飯)였다.

카필라바스투(Kapilavastce)는 숫도다나 라자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나라로서의 골격을 갖추게 되나 이때는 이미 남쪽의 강력한 코살라국의 변국(제후의 나라)으로 전

락되고 있었다. 코살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불가항력이긴 했으나 자존심이 강한 사카족으로선 대단히 치욕적인 사건으로 아리안족에 대한 적개심이 한층 불타오르게 되었다.

정반왕 숫도다나 라자(王)가 카필라바스투를 이끌고 있을 당시 이웃의 동맹국이면서 같은 동족(Sakya)의 나라인 코리아(Koliyas)국에 수프라 붓다(Suprabuddha-善覺)라자의 자리에 있었다. 수프라 붓다 라자는 그의 아름다운 왕비를 위하여 카필라바스투와 데바다하(Devadaha) 사이에 있는 동산을 아름답게 개발하고 왕비의 이름을 따 룸비니(Lumbini)동산이라 이름하였다.

'룸비니'는 물론 수프라 붓다 라자의 왕비 이름이기도 하지만 또 지모신(地母神)을 뜻하기도 한다. 이런 점은 우리 민족이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보는 사상과도 그 맥을 같이하고 있어 대단히 흥미롭다.

